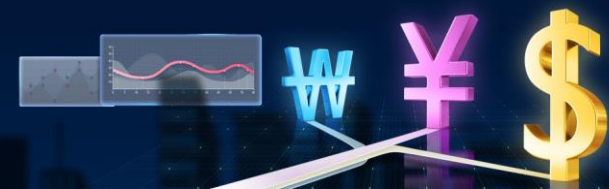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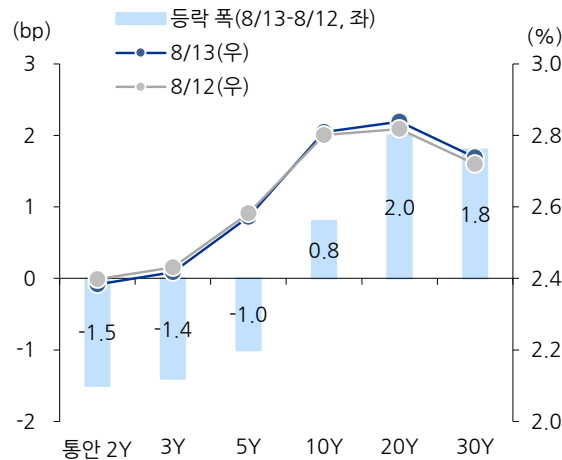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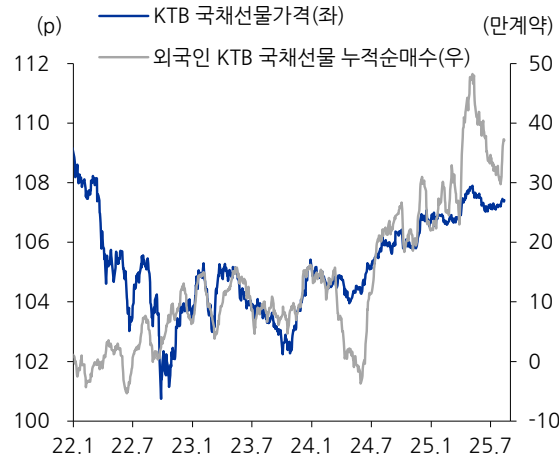
(단위: %,bp, 톱)

	8/1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417%	-1.4	-1.3
	한국 국고채 10년물	2.809%	0.8	3.0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9.2	37.0	34.9
	3년 국채 선물(KTB)	107.42	6.0	4.0
	10년 국채 선물(LKTB)	118.61	-4.0	-19.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674%	-5.8	-4.1
	미국채 10년물	4.235%	-5.6	0.6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6.1	55.8	51.4
	독일국채 10년물	2.678%	-6.5	3.3
	호주국채 10년물	4.225%	-1.9	-3.3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L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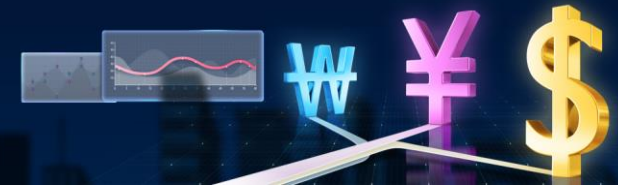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속 단기물 위주 강세 마감.
- 간밤 미국 CPI 예상치 부합에 시장은 9월 금리 하락을 확실시하며 미국채 금리도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발 금리 하락 압력.
- 하지만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은 단기물 중심에 그쳤고, 장기금리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 국정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 다만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뉴욕 채권시장 금리 인하 기대 강해지면서 강세 마감.
- 간밤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나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으나, 시장은 CPI 발표 이후 9월 인하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흐름.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9월 50bp를 포함한 연속 인하가 가능하다고 발언.
- 다만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신중론을 이어감.
- 금일 미국 PPI 발표 예정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경우 금리 추가 하락 시도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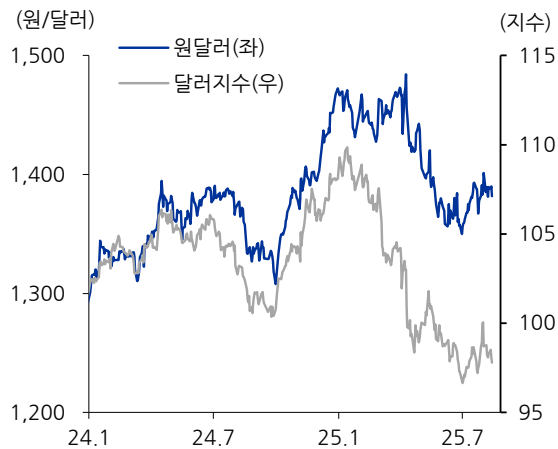


FX & Commodity

(단위: %, \$)

	8/13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81.70	-0.6%	-0.6%	-6.2%
달러지수	97.79	-0.3%	-0.4%	-9.8%
달러/유로	1.171	0.3%	0.4%	13.1%
위안/달러(역외)	7.18	-0.1%	-0.1%	-2.1%
엔/달러	147.38	-0.3%	0.0%	-6.2%
달러/파운드	1.358	0.6%	1.6%	8.5%
헤알/달러	5.40	0.2%	-1.1%	-12.6%
상품				
WTI 근월물(\$)	62.65	-0.8%	-2.6%	-12.6%
금 현물(\$)	3,348.00	0.2%	-1.0%	27.6%
구리 3개월물(\$)	9,840.50	1.1%	2.1%	12.2%

달러-원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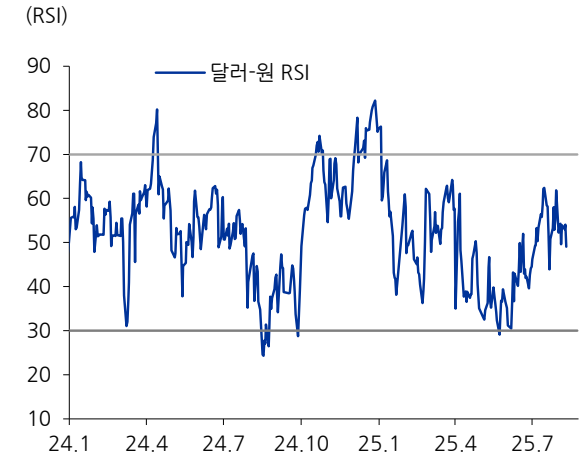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 추이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8.20원 하락한 1,381.7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379.40원 마감.
- 간밤 달러는 예상에 부합한 미국 CPI를 소화하며 하락. 달러-원은 전거래일 대비 -5.90원 하락 출발.
- 오전 한 때 1,386원 선까지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우위 흐름이 장중에도 유지. 장 막판 달러 약세가 심화되자 달러-원도 1,381원선까지 낙폭을 추가 확대.
- 이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속에 외국인도 국내주식시장에서 6,400억원 가량 순매수.

달러-원 RSI 추이



달러 지수 동향 및 관련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커지는 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
- CPI 예상치 부합과 함께 베센트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9월 빅 컷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
- 반면 시카고/애틀랜타 연은 총재들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이어감. 고용 발표 이후 연준 인사들의 톤이 9월 인하로 기울었지만, 여전히 내부 신중론자들이 남아 있어 빠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한편 트럼프는 재차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3~4명으로 좁혀졌으며 과거 관행에 비해 조금 더 일찍 지명할 생각이라 언급. 푸틴과 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이 잘 이루어질 경우 즉시 마러-우 2차 회담에 나서겠다고 발언.